

개화기 계몽담론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단상

-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Use of the Family in Enlightenment Discourses:
an analysis of Taehan Maeil Sinbo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전 미 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Jun, Mi-Kyung

〈Abstract〉

This is a study of discourses on the family used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To this end, I have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ditorials taken from the Taehan Maeil Sinbo of that peri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se Enlightenment period discourses claimed that civilized nations evolved from a family in primitive society. This concept of famil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amily in a Confucian society. Civilized societies believed the family is less important than the nation. At that time, Korean press used the term bumoguk (parental nation) to refer to the nation in an attempt to equate national loyalty to filial piety. Second, the Enlightenment period claimed that the nation belonged in the public sphere while the family belonged in the private sphere. However, it was stated that it was the duty of the family to discipline the members and make them into good citizens. Finally, Enlightenment discourses used familyism as the basis of their arguments.

▲ 주요어(Key words) : 가족(family), 가족주의(familism), 국가(nation), 국가주의(nationalism), 대한매일신보(Taehan Maeil Sinbo), 계몽담론(Enlightenment Discourses).

I. 들어가는 말

지난 한 세기동안 한국 가족의 변화의 폭은 매우 큰 것이었다. 가족구성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족주기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주된 동인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핵가족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정부에 의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견인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실 사회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기에 한국의 가족사를 설명함에 있어 산업화·도시화란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만으로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던 조선의 가족이 근대가족으로 그 외연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1960년대부터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가족을 이루는 핵심적 원리에 대한 당위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유교적 색채를 탈피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사를 언급하는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 ‘개화기’이다. 개화기는 서구문물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 주저자 : 전미경(E-mail : preba@chollian.net)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한국 가족사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화기'가 가족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개화기 계몽담론안에서 '가족'이란 기표를 면밀히 찾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이 당시 계몽담론에 의하여 어떻게 호명되었는지를 기술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계몽의 기획을 읽어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²⁾

계몽담론에 의해 주조된 '가족'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가족'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한 계몽담론은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주조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계몽담론의 의도를 충실히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연구는 역사적 구성체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한국 가족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개화기 가족의 변모를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계몽담론이 개념화 하고자 했던 '가족'을 명료화하는 작업은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은 가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배경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계몽담론이 주조하고자 한 '가족'의 모습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계몽담론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다음의 연구내용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계몽담론안에서 '가족'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담론 안에서 '가족'이라는 기표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하여 '가족'이 어떤 배경 아래에서 논해지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계몽담론안에서 새롭게 배치되고 있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것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의 주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계몽담론이 가족을 어떻게 규정지으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위의 두 연구내용을 토대로, '가족'에 대한 계몽담론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과 함께 개화기 가장 대표적인 민족지라 할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³⁾를 텍스트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904년 7월 18일 발행된 신보는 당대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면서 열혈적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외치고 있었다. 사실 일본은 1904년 2월부터 민간신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있었는데, 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 이란 이유로 일본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

2) 계몽담론과 이 담론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미경 (2001a), 전미경(2001b) 참조.

3) 이하에서는 '대한매일신보'를 '신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한 것은 신보의 소유주 Ernest Thomas Bethell(裴設)이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인이었기에 치외법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보가 발행되던 당시에 일본에는 이미 서양인들의 치외법권이 소멸되었으나, 한국과 중국에는 치외법권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미 조선의 경찰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였던 일본 통감부도 배설의 신문을 탄압할 수는 없었다. 한국의 민족주의자들과 고종은 일본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신보를 항일 민족운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었고, 이후 신보는 항일무장 의병투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강력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본거지가 되었다(정진석, 1997: 19-20). 또한 신보는 독자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오락성을 겸비하고자 소설을 게재하는 등 판매 부수를 늘리고자 하였으며, 광고를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독료와 광고료만으로는 운영이 늘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에서 자유로운 신보는 당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기에 신보를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 애독자들은 신보에 기부금과 찬조금의 형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신보의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었다. 1907년 5월 5,000부가 발간된 이래 1910년 6월에 가서는 그 판매 부수가 10,000부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국신문이나 일본계 신문의 정기구독자 보다 많은 것이었다(이현종, 1966:103-104).

또한 한국 현대사에서 신보가 차지하는 위치는 특이하고도 중요하다.⁴⁾ 신보는 개화기 대표적 민족주의자라 할 수 있는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를 집필진으로 하여 영국인 소유의 치외법권 아래에서 당대 다른 신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내외에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인층을 위한 국한문판, 여성을 포함하여 삭자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순한글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의 3종의 신문을 동시에 발행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일간지인 신보를 이렇게 3종류의 신문판으로 발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구국(救國)에 대한 신보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보는 노일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일합방이 공포되던 날까지 6여년 동안 발행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보의 계몽담론은 다른 어느 신문보다 뜨거운 어조로 '계몽'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었기에 이 신문에서 보여주는 '가족'은 당시 가족에 대한 계몽의 기획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순한글판 신보의 고정란이라 할 수 있는 '논설', '시사평론', 그리고 그 외 계몽적 논조로 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별보'와 '기서'를 분석하였다. 1904년 7월 18일 신보의 첫 판은 순한글과 Korea Daily News가 불어서 발행되었으나, 이후 국한문혼용으로 바뀌었고, 다시 1907년 5월 23일에 순한글판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진석(1997, 20-24) 참조.

신보가 창간되어 폐간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순한글판이 발행되었던 1904년 7월 18일부터 1905년 3월 10일까지와 1907년 5월 23일부터 신보가 폐간되는 1910년 8월 28일까지의 신보의 계몽담론을 분석하였다.

II. 계몽담론안에서의 '가족'

이 연구는 먼저 계몽담론안에서 '가족'이란 기표를 찾는데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담론의 뼈를 가로지르면서 채집되는 '가족'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그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계몽담론안에서의 '가족' 찾기란 '가족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동시에 이에 대한 답은 '가족이 어떤 구도 아래 배치되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다.

1. 국가와 가족의 위계화: 문명으로서의 국가, 야만으로서의 가족

'몸과 집과 나라 세 가지 정황의 변천'이라는 신보의 논설(1909.7.15-17.)은 당시 계몽의 담지자들이 '가족'을 어떤 배경아래 등장시키고 있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담론이다. 이 담론에서 몸과 집과 나라는 일직선상의 화살표 위에서 제시되고 있다. 담론 위에서 생성된 직선의 화살표는 순식간에 미래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것은 시간의 화살표였으며, 신보의 화살표였다. 계몽담론은 진화를 지향하면서 끝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이 화살표 위에 '가족'을 끼워 넣고 있다. 3회에 걸쳐 제작된 이 담론은 '직선'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화살표를 통하여 '몸'과 '집'과 '나라'라는 세 가지 정황의 변천과 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담론은 먼저 시간을 상고시대, 중고시대, 근세시대로 분류한 뒤, '인류의 역사상 진보된 상황을 증거'하고자 할 때 먼저 '몸과 집과 나라 세 가지 정황의 변천'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
→		
야만/미개	문명/진보	
상고시대	중고시대	근세시대
몸을 위하 는 시대	집을 위하 는 시대	집과 나라를 위하는 시대
나라를 위 하는 시대		

<그림> 몸과 집과 나라 세 가지 정황의 변천>

이런 배치는 이 화살표의 시작을 과거로 두고 있으며, 이때 과거란 '미개'와 '야만'을 상징한다. 물론 이것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문명의 발전은 '국가'와 '민족'을 탄생시키고 있었으나 동시에 '가족'을 야만과 미개로 설명한다. 위 담론에

의하면, 상고시대에는 '몸'을 위할 줄 아는 생각이 생겼고, 문명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중고시대에는 여러 집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부락의 제도를 위하여 되었고 이때부터 '동성동본이면 화목 하는 단결'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근세로 접어들면서 부락은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백성된 자는 자기 몸과 자기 집이나 알고 나라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국가는 있으나 빈 이름뿐인 것이다. 담론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주의'는 그 이후 몇 백년에 걸쳐 점점 발달하게 된 '문명'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 가족, 국가를 '몸-가족-국가'라는 일련의 위계적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몸'과 '가족'은 '국가'라는 완성체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몸은 가족으로, 가족은 국가로 발전하는 '진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곳 빅성의 나라 | 라호야 그 잊고 업
셔지는 것을 오죽 빅성이 담임한다 | 헤며 국민은 이 나라의
빅성이라하여 그 편안하고 우뚝한 거슬 오죽 이 나라의 담
당이든하여 국가는 국민의 공공한 산업으로하고 국민은 국
가의 공공한 권리를 가지게 된지라 … 대개 국가의 명칭
은 넷적브터 잇셨스나 넷적의 국가는 혼 가족의 가진바
| 며 지금 시대의 국가는 혼 민족의 가진바 | 라 (신보,
1909.7.17. "몸과 집과 나라 세 가지 정황의 변천")

문명한 사회로 갈수록 '국가'를 중심에 두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계몽담론에 의하여 '국가주의'는 20세기 새 천지를 조성하는 중심축이 된다. 적지 않은 계몽담론에서 '집'에 대한 이러한 구도를 읽을 수 있다. '태고시절에는 사람의 식견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한 집이 그 향토가 되었고 … 근래에는 동서양 임의로 왕래하는 장년 남자와 같으니 일국이 그 향토가 되었거늘'(신보, 1909.9.18.)이라고 말하는 담론은 태고시절을 아동기로, 지금 현재를 성인기로 묘사하면서 '집'과 '국가'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태고시절(야만시절), 어린아이, 집'이 같은 범주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것은 '근래(문명시절), 장년남자, 국가'라는 범주와 자연스럽게 대치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제 집안 족속의 생각만 있고 국가 민족의 생각은 없'는 미숙한 행동을 일삼는 행위의 주체자를 의미한다(신보, 1909.7.17.). 또한 담론은 '근래에는 일국의 원동력이 항상 전국 국민의 다수한 사람에게 있'기에 국민된 자로 국민의 능력이 없어서 '몇 백년 전 형편과 같이 다만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양육하여 주기만 바라면'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국민'이라 지금의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론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의 구성원은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어른' 즉 '국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신보, 1908.7.23.). 이처럼 국가를 완전한 '성숙체'로 가족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시선은 가족을 아이로, 국가를 어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어린아이는 근대의 산물인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감시’와 ‘규율’이란 엄격한 훈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가족’은 곧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국가’는 ‘어른’과 같은 성숙체(成熟體)라는 계몽의 분할은 아이와 어른의 연속성을 가족과 국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결과적으로 가족을 국가 아래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족은 국가에 종속됨과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부여받게 된다. 국가와 가족의 위계적 질서 아래 ‘가족’은 미완의 장소가 된다.

2. 국가와 가족의 균등화: ‘부모국’으로서의 국가

계몽담론은 적지 않은 곳에서 조선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가족’의 위기로 비유하고 있다. ‘삼천리 강산은 뜻대 없는 배와 같이 떠 있고, 이천만 인민은 칼과 창 사이에 둘러 있’는 ‘가공하고 참혹’한 조선의 상황을 담론은 ‘하늘에 닿는 큰 물결이 문턱에 닥쳐서 부모 처자가 모두 물귀신이 될 지경이오, 산 같은 불꽃이 촌락을 소화하여 봉우형제가 일조에 환난을 당’(신보, 1908.4.24.)하는 급박한 위기로 설명하였다. 비슷한 예로 ‘파괴시대’라는 또 다른 담론에서 조선은 ‘기울어지는 집’이었다. ‘이제 큰 집 하나 있으니 지은 지가 여러 천년이 되어 기둥이 썩고 기와가 벗어지며 창호가 퇴락하고 장벽이 퇴비’(신보, 1910.7.13.)하였다고 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집’의 수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계몽담론의 이러한 비유는 매우 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이 국가의 위기를 가족의 위기로 직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숨은 뜻은 ‘국가’를 ‘부모국(父母國)’으로 지칭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 인간 고난이란 거슬 안 당흔 것 혼나 업고 국가 리익 된다며는 아니 혼 것 별노 업시 밤낮으로 이쓰다가 경륜되로 못 다하고 황금산에 비가 되어 부모국을 영결흘 체 그 민음이 엊더흘고 나의 가장 스량흐는 부모 형데 조민들 아 나의 심수 성각흐라 (신보, 1910.4.20. “시스평론”)

1910년 말미 조선이 일본과 합병되기 얼마 전에 쓰여진 위의 담론은 조선이 처한 작금의 위기를 ‘부모의 상(喪)’에 비유하여 ‘부모국의 영결’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국가는 ‘부모국’으로 호명된다.

이렇게 국가를 ‘두려마라 부모국아’(신보, 1909.5.20.)라고 호명하는데서 국가와 부모는 균등한 무게를 갖게 된다. 즉 ‘부모국’이란 기표는 ‘부모’와 같은 ‘국가’, 혹은 ‘국가’는 곧 부모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부모국’은 ‘부모(父母)’와 ‘국(國)’을 동일한 것으로 배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계몽담론이 이처럼 국가와 부모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 균등화시키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대 백행의 근본으로 강조되었던 ‘효’의 당위성을 ‘국가’에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너희 무리는 시험흐여 성각흘지어다 여호도 저의 굴을 스랑흐며 시도 저의 등지를 스랑흐거늘 소위 인류가 되어 엊지 그 부모국을 스랑치 아니흐며 스랑치 아니흘 뿐아니라 그 부모국을 해롭게 헤여 우흐로 하늘을 두려워 헤지 아니흐며 아리로 사름을 봇그러워 헤지 아니흐느니 너희 무리는 과연 무숨 물건인가 (신보, 1910.3.22. “쇼인비를 경계함”)

이상의 담론은 계속해서 부모국에 대한 소홀은 곧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 ‘지옥’ 중에 들어갈 일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담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국가는 나의 국가이기 이전에 ‘부모’와 같은 국가라는 것이다. 효가 중요한 윤리의식으로 가능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국가’가 ‘부모국’이 되었을 경우 국가에 대한 ‘충’의 순도는 더욱 높아진다. 다음의 담론은 이러한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담론은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조선을 ‘부모국’으로 부르고 있다.

신대훈 이국청년 쓸눈 피가 쓰거워 / 일심으로 분발흐야
혈성더를 조직코 / 조상나라 봇들기로 굿게 맹약흐였네 /
두려 마라 부모국아 원수들이 만호터 / 담력있고 용맹잇는
혈성더의 청년들 / 부모국을 직회라고 굿게 파슈 섯고나 (신보, 1909.8.11. “스조 혈성더”)

청년을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끌고자 했던 앞의 담론은 ‘두려워 말아라 부모국아’라고 하면서 국가를 ‘부모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계몽담론에 의한 ‘부모국’이란 지칭은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연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이러한 부모-자녀간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를 ‘부모’와 연계시키고 있었으며, 이때 청년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요구함은 논리의 전개상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각 학교를 봐라보니 이국흐는 경년들이 국가스상 비양흐며
문명학술 연구흐고 각식실력 양성흐며 모든 수업 준비코져
쥬야열심 흐눈도다 격정마라 부모국아 이국청년 일흘
논 즈유형복 누릴지니 이 혼가지 희망쳐 | 라(신보,
1910.3.20. “시스평론”)

담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국가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에 청년은 국가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몽담론의 논리는 물리적인 영토로서의 국가인 ‘한반도’를 ‘조상나라’로 부르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 너는 나의 조상나라이니 /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 뿐일세'(신보, 1909.8.18.)라는 담론에서 '조상'과 '나라'가 '조상나라'라는 기표 안에서 서로 균등화된다.

'부모국', '조성나라'란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계몽의 담지자들이 '국가'를 창출하고자 했던 담론 안에 '가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유는 '애국'을 당위적인 것으로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기 '가족'은 '국가'라는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경우 '국가'라는 기호와 함께 출연하고 있다. 계몽의 기획에 의해 가족은 언제나 '국가'와 함께 계몽의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었다. 여기서 가족은 국가와의 끊임없는 위계적 질서 안에 포섭되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별적 단위로 조망 받는 동시에 국가는 부모와 같은 무게를 갖는다. 가족의 질병은 가족 그 자체가 갖는 중요함에 의해 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전체의 질병과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의해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국가의 존망은 곧 가족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담론은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가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III. 계몽담론에 의한 가족의 재발견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몽담론에서 가족은 철저하게 '국가'라는 층위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몽담론이 발화되는 목적이 '국가'였기 때문이다. 계몽담론 자체가 항상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생성되었다고 볼 때 가족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를 배경에 두고 재배치 된 '가족'에게 어떤 기능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1.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

개화기 계몽담론에 의한 근대국가의 탄생은 곧 '공적영역'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롭게 생산된 공적영역은 그것과 대치되는 '사적영역'을 필요로 한다. 국가에 대한 계몽담론의 열정은 '공적영역'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러한 계몽의 기획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주장이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계몽담론이 말하는 '공(公)'과 '사(私)'의 경계부터 확인해보자.

공적영역이 공적영역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이 필요하며, 그것은 공사의 명확한 '경계'를 통해 가능하다. '충성'을 말하는 다음의 담론에서 공과 사는 확연한 경계를 갖게 된다.

한문에 충성충조를 보면 가온터 중(中)조와 모음 심(心)조를 합해야 충성이란 충(忠)조가 되었으나 사률이 가온터서

소사나는 실상 모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남군을 섬기면 이를 널으니 충성이라 헤려니와 … 그런 고로 사률의 속에 있는 모임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공변된 모임과 스스로은 모임이라 대개 스스로온 모임은 물욕에 쇠을녀 흔든 일이 보다 외물에 욕심으로만 훈족 이거슬 충성이라 할 수 있고 진개 충성이라 할 거슬 곳 공변된 모임으로 공변된 일을 헝겊이라 (신보, 1907.12.15. "충성론")

위의 담론은 사람의 마음을 '공변된 마음'과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 공변된 마음이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사로운 마음이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충성은 '공변된 마음으로 공변된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한다. 공변된 마음은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고, 그 반대의 사사로운 마음이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정의 내리는 이상의 담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공변된 마음의 촉구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영역이 '공적인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변된 마음은 '국가'와 직결되는 개념이었다. '공변된 마음으로 문명한 사업을 발달하여 국가를 흥하게'하자는 주장에서 이 공변된 마음과 대치되는 것은 '사사의견으로 한 대문 안에서 패를 나누'는 것이라(신보, 1910.3.9.). 담론에서 '한 대문'이라 함은 자기가 생장한 지방을 말하지만, 이 담론이 궁극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적 이익'의 추구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적영역의 탄생이 '공'의 개념 아래 '공'의 탄생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자.

'이천만중 우리 동포 사사이의 생각 말고 공공이의 도모하며, 잠시 고통 겪고 큰 사업을 경영하여 해진 마음 다 거두어 단합력을 양성하면 유능제강 할 것이니 범연하게 듣지 말고 실지 시험 하여보소'(신보, 1909.12.1)라는 말은 개화기에 매우 익숙한 계몽의 문구이다. 개화기 '국가'에 대한 개념이 그 위상을 드러낼수록 '가족'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영역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규정된다. 특히 신보의 '자기 일신을 위하여 살기를 구하지 말지어다'(신보, 1909.11.21.)라는 논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일신은 개인의 '몸'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의미한다. 즉 가족은 일신(一身)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은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찮은 공간이었다. 가족이란 공간 안에서 '다만 노인이나 봉양하고 자식이나 기르는 것'을 자신의 '천생직분'으로 여기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용렬한 선비'의 삶이 된다(신보, 1908.3.6.). 이와 같은 계몽담론에서 공변된 이익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한 집에는 아무 이익이 없을지라도 공변된 이익이라 하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나의 한 몸에는 특별한 영광이 없을지라도 공변된 이익이라 하거든 기꺼이며 즐겨'(신보, 1909.1.17.)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자는 구호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반대 개념인 '사적 이익' 즉 개인의 사사로운 '몸'과 '집'

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되었다. 그런데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이 이기적인 장소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과 공적영역으로서의 국가가 갖는 새로운 배치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대립되는 항으로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간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개화기 절대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국가주의’는 가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담론은 국가주의의 중요성을 간접의 이익과 장래의 이익으로 설명한다.

범스를 나의 일신만 위하고 나의 한 집만 보전코져 혼야
공익이라 혼는 것은 염원 원슈굿치 보아서 … 만인의 락을
일인이 홀노 즐기니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리익으로 아나
그러나 이런 악독한 일의 결과가 필경 전국이 와해하며 인
심이 불울혼야 다른 나라의 간섭을 조천하고 인민의 권리
가 다 쪘려지면 능히 나만 홀노 락을 누리겠는가 이것은
못지 아니하여도 능히 못홀 줄을 알지라 그런고로 직접 리
해만 알고 간접의 리해는 알지 못하면 너는 그 직접으로
엇은 리익도 맛춤내 일허브릴 거시오(신보, 1908.6.13. “간
접의 리해와 장락의 화복”)

담론은 나의 일신만 위하고 나의 한 집만 보전하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악독한 일의 결과’는 곧 국가의 폐망이라 하면서 몸과 집에 득이 되는 직접적 이익보다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이 장래의 화복을 가져오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족주의’는 국가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것은 이분법의 구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배치가 중요한 것은 이 구도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는데 있다. ‘세계 각 민족이 눈을 부릅뜨고 국가주의를 주장하며, 팔을 벌리고 국가 세력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아는 가족주의는 ‘나라를 멸망하는 주의’(신보, 1908.12.24.)가 된다.

갑·을·병·정·무의 다섯 학생의 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다음의 담론은 이러한 일면의 극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갑은 대대로 내려오던 집이 물수되어 밤마다 집의 불을 끄는 꿈으로 괴롭다고 하고 있었고, 을은 가난으로 집안 식구 모두가 죽어 눈만 감으면 죽은 가족이 생계를 짚하느라고 고생하는 꿈으로 괴롭다고 하며, 병은 상업으로 얻은 수익을 불한당 괴수에게 모두 뺏기고 분한 마음에 밤마다 이 불한당과 싸우는 꿈을 꾼다고 하고 있었으며, 정은 어렵고 끊기 어려운 것이 사정(私情)이라고 하면서 3세 아이를 영웅을 만들기 위하여 밤마다 아이를 가르치는 꿈을 꾸느라고 괴롭다고 하고 있었다. 이에 무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큰 소리로 갑·을·병·정을 꾸짖고 있다.

그더 둑은 진개 씀에 속에 씀을 꾸는 자 |로다 … 너는 무

숨 거를에 소소집의 성쇠를 씰꾸며 삼천리 산천에 소는
이천만동표가 이곳치 곤난하게 되였거늘 너는 어느 거를
에 소소 사집안에 고락을 씰꾸며 전국에 실엄이 이곳치
쇠잔호거늘 너는 어느 거를에 일시 소소 사영업의 실폐
혼 거슬 씰꾸며 즉금에 교육이 이곳치 썰치지 못한거늘
너는 어느 거를에 일개 너의 아들의 전경만 꿈을 꾸는뇨
(신보, 1910.3.8. “안색을 의지하여 다섯 학생의 꿈 니약이
흔는 말을 듯는다”)

갑·을·병·정 모두가 무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들이 ‘사사로운 가정사’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담지자가 ‘무’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꿈에도 집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사생각을 버리고 공변된 것을 승상’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장래를 전도시킬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힘을 싣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열망했던 정의 꿈 역시 비난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은 이제 겨우 3세된 아이에 대한 교육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어찌하면 비스마르크와 클래스톤 같은 큰 정치가를 만들고, 어찌하면 모기와 널손같은 큰공을 이를 사람을 되게 할까’로 고민하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당시 계몽담론에 의하여 그토록 강조되었던 교육에 대한 당위성 앞에서 자녀교육을 열망했던 아버지였던 정이 무의 비난을 모면치 못하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한 정의 계획에는 ‘국가’, ‘국민’, ‘애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 가족, 국가의 삼각구도 아래에서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은 어떻게 자리 매김 하였는가. 개인과 집단의 모든 열정이 ‘국가’로 전념해야 하는 구도 아래에서 ‘사사이익’을 추구하는 가족은 ‘부재(不在)’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한국에 더하여 향을 살오고 혈성으로 축원하는 바
는 드만 … 눈에는 나라국조만 잊고 집이라는 가쓰는 업
스며 모임에는 공공호 리익만 잊고 스스로온 리익은 업
셔서 몸과 피와 직물을 교육하는데 희생을 숨는 일을 흔는
것 뿐이려다. (신보, 1909.8.24. “이 사롭이 아니면 누구를
부랄고”)

담론이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은 ‘나라국’자만 있고 집이라는 ‘가(家)’가 없는 즉 ‘가(家)’의 소멸이다. 집의 소멸은 곧 ‘사사로운 이익’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멸을 통해 다다르는 종착점은 ‘국(國)’과 ‘공공한 이익’의 극대화이다.

개화기 가족은 개인과 국가를 연계하는 매개체였다. ‘나’가 곧 ‘국가’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개물로서의 ‘가족’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집의 소멸을 주장하는 담론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몸을 위하고 집을 위하는 마음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 더 중하며 몸을 위하고 집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다투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은 '천지간 일개 버려지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었다(신보, 1910.2.12.).

이처럼 개화기의 '가족'은 '국가'라는 지평 이외에는 자신이 서 있을 공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오직 '국가'라는 층위에서만 그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층위 밖의 공간에서는 설 곳을 잃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개화기 계몽 담론에서 '가족'의 모습은 '부재'해야 할 대상으로 출연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국가를 논하는 많은 담론 안에서 '가족'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재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혹은 더 나아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2. '국민' 생산기관으로서의 가족

조선을 건국한 신홍사대부들은 유교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유교원리의 중추적 핵심이 바로 '가족'이었다.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 인간 공동체는 가족공동체를 모델로 한 것이었기에 유교사회는 가족제도에 기초한 것이며 가족은 사회구조의 원형이었다. 유교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인간의 개념과 가치규범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인간은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즉 개인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조화로운 전체의 한 지체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는 그의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즉 가족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유교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는 가족, 씨족 및 공동체에 속하며 그의 일원으로서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신옥희, 1983:167). 다시 말해 조선시대 '가족'의 원리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운영 원리일 뿐 아니라 가족을 떠난 개인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위상은 개화기에 이르러 계몽의 주체들에 의해 크게 도전 받기 시작한다. 개화기 계몽의 주체들은 열강의 도가니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열강과 같은 부국강병한 근대국가의 전설로 모아지고 있었다. 가라타니 고진(1997)이 지적하였듯이 근대국가는 그 자체가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의 교육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의 가족은 계몽의 기획에 의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란 새로운 인간을 주조해야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일면을 살펴보자.

개화기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다음의 담론에서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녀 사회를 모든 짘는 가정이라 그런고로 부폐흔 사회
를 지향코져 홀진더 가정의 부폐를 지향한더 종소홀지
니 무릇 사롭이 처음날 때에는 모다 천정하고 티도 업는

정신이라 이 정신은 선호 거스로 낙하면 악함이 비유컨디
흔필 흰비단을 이에 놓코 붉은 쇠으로 물드리면 이거시 붉
어지고 검은 쇠으로 물드리면 이거시 검어짐과 그흔자라
그런고로 사롭의 선을 헤고 악을 흠이 태반이나 가명교육
에 있느니 … (신보, 1908.7.5. "가정과 사회")

이상의 담론이 '가정'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가정'이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 혹은 국가는 무수한 '가정'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한 사회의 개량은 가정의 부패를 개량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가정이 국민 '개량'의 중요한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은 '가정' 안에서 처음으로 소속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가정이 사회와 국민개량의 기본단위가 된다는 구도아래에서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량된 사회는 개량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위의 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라기보다는 '가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개량을 위해서 가족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이상의 논리는 과거 가족을 지배하는 원리를 통하여 사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유교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위의 담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리가 가족에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족'은 사회에 기능적인 제 단위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사회에서의 가족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유교사회에서 국가는 가족의 확대형이며, 가족은 사회적 결속의 기초가 된다. 국가는 말하자면 '국가적 가족(national family)'이며 왕은 아버지고 백성은 그의 자녀와 같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 있어서의 부자 관계가 그대로 군신관계의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개개의 가정에 있어서는 물론 유교의 '가족형적' 국가에 있어서도 지도적 윤리 원칙은 유교적 효(孝)와 자(慈)이다. 유교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며 최고의 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효는 가족규범이고 충은 국가규범이다. 그런데 사회와 국가규범인 충은 효의 연장이다 (신옥희, 1983:168). 정리하면 조선시대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는 가족 밖의 사회와 국가로 계속 확대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 계몽 담론은 가족에게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일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보의 1908년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는 '서호문답'은 동호의 객(동호자)의 물음에 서호의 주인(서호자)이 답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화기 말미의 계몽 담론의 논지가 잘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담론은 '교육'에서부터 그 출발을 시작하고 있었다. 즉 서호자에 대한 동호자의 첫 물음은 '사람의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고, 이에 서호자는 그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사람 되는 기관'으로 설명한다. 서호자는 교육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에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나흘지로다'

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서호자는 교육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분류한 뒤 가정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죽인월 첫지는 가정교육이니 혼 사룸이 뜻을 세워 집안에서 실시호되 교육의 주의와 의국호는 스상을 가지고 우호로 부모의계던지 아리로 쳐즈와 동거전지라도 사룸⁵⁾이 서로 권면호야 온 집안이 단데로 화락홀지니라

직월 이는 실디와 학식과 문건이 업스면능치 못호겟지오 죠일월 그런고로 집안에 부녀와 익히들이라도 몬져 국문을 익하게 혼 후에 틈이 있는 딱로 시간을 명호야 가명 잡지와 국문 신보를 열람호게 호되 남편은 그 안희를 그르치고 할아버는 그 손즈를 그르쳐서 온 집이 이로써 안으로는 집사룸의 수업을 슴고 밖그로 나라 빅성의 의무를 슴으면 비단 혼 집의 다험홀 쁘 아니라 온 나라의 유익함이 되는니 이도 국가의 일분조 되는 단데니라 (신보, 1908.3.7. “서호문답”)

위의 담론에서 ‘가족’은 온통 교육의 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부녀와 아이들은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할아버지는 손자를 가르치는 ‘사업’에 열중해야 한다. 이러한 일면을 13세의 여학도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13세의 어린 여학도가 ‘인생에 미리 힘쓸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 부모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의 의무’인데, 그 중 가정의 의무는 ‘자녀를 좋은 학당에 보내어 모든 학문을 공부시킬 것’으로 요약된다(신보, 1907.9.8-10.). 개화기 ‘가족’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당대 가족이 ‘자녀’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조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교육에 대한 계몽의 기획은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즉 계몽담론은 ‘가정’을 교육의 장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담론 안에서 가정은 ‘아동이 타일 사회에 출(出)하야 만반집사(萬般集事)에 계종(諸種) 준비를 급여하는 처(處)’(정운복, 1906:144)가 된다. 이때 교육의 대상은 ‘자녀’가 되며, 교육의 주된 내용은 애국사상으로 무장된 ‘국민’에 있다. 이처럼 가정은 가정교육에 의해 국민을 생산하는 기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학교’의 탄생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학교는 다수의 인민을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화기 교육의 장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대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특히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었다.

청년은 교육하기가 살히 어려우니 대법 교육은 가명에서

교육을 잘받은 연후에야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잘 맟으며 학교에서 교육을 잘 맟은 연후에야 사회의 교육을 잘 맟을지어늘 이제 가명에서 교육을 잘 빼은 청년이 몇사름이나 되는가 그런즉 교육을 발달호논더 근본되는 가명 교육을 엊지 험쓰지 아니리오 (신보, 1909.10.28. “녀조교육에 대한 의결”)

담론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성공과 실패의 출발을 ‘가정 교육’으로 보고 있다. ‘가정교육으로 근본을 삼아 젖먹을 때부터 교육을 잘하면 정대하고 근실한 사람’이 되므로 ‘가정교육은 동몽의 제일 교육’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제국신문, 1906. 12. 22.). 개화기 가족에 부여된 ‘교육’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가족은 가족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습’의 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교육은 어디까지는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단계였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논리는 ‘학교’에 대한 목적이 ‘가정’ 안에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교육의 내용은 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전통시대의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때의 가정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을 위한 전단계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국민’으로 잘 훈육할 수 있는 기초 토대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계몽담론의 논지는 자녀가 학교에서 ‘국민’으로서의 훈육을 잘 받기 위하여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화 우리 학도들아 가명교육 맛을 적에 충의지심 뼈에
박혀 영웅소업 혼겼스니 국가에다 혼신기로 삼척장검 빗
기 차고 군수학에 입학호야 호남⁶⁾가 되어 보세(신보,
1909.8.12. “시스평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배치가 갖는 구도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구도는 ‘가정’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장’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기관으로 위치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홍일표, 1997:286). 다시 말해, 이러한 구도는 가정을 학교와 비등한 단위로 만들고 있는데, 이때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家)’와는 다른 개념의 것이다. 가정이 학교와 연계됨으로써 근대국가를 성립하기 위한 기관의 성격이 강조된 채 기존의 전통적인 가(家)와는 별거를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개화기 가족은 ‘국가주의’의 실천단위로 정의 내려져면서 가족원 모두에게는 ‘국가’를 염두에 둔 삶을 펼쳐야 하는 당위성이 부여된다. 신보는 1908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잡보란에 ‘가정주의’란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 각각의 기사에는 ‘위생’, ‘교육’, ‘인사’, ‘의복’, ‘음식’, ‘혼인’, ‘상례’, ‘사상’, ‘자조자천조론’의 소제목 아래 가족안에서 실천해야 할 문명의 규율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몽

5) = 사룸사룸

의 담지자들이 제조하고자 했던 '가족'의 일면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이 계몽의 규율을 실천해야 하는 단위로 조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 화초를 심고, 요강을 없애고, 환기를 시켜야 하며, 매일인사는 '일기가 좋소' 혹은 '밤이 좋소'로 해야 하며, 의복은 '심흑색'으로 해야 한다는 매우 사소하고도 미시적인 규율에서부터 자녀교육, 남녀평등사상, 혼인과 상례 같은 통과의례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문명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주의'는 자조자 천조론(自助者天助論) 즉 '하늘은 스스로 돋는자를 돋는다'로 맺고 있다. 여기에는 '비사맥'(비스마르크)이 수령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즉, 수령에 빠진 비사맥의 친구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비사맥은 오히려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친구가 '죽을 힘'을 다해 수령을 빠져나왔다. 그제야 비사맥은 '그대가 그대의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늘은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돋는 차를 구조하나니라'라고 하면서 '자력'을 강조하고 있다(1908.3.22.). 이처럼 계몽담론은 수령에 빠진 조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강력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바로 그 힘은 '가정'에서부터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은 문명의 규율을 통해 '국가화' 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국가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근대적 규율로 가족을 재정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바로 이 지점이 가족이 '국가'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자리 매김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 자강력을 갖춘 국가는 개별 가족의 '문명됨'의 실천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라 함은 곧 사회라는 집단이 무수히 작은 '가족'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몽담론은 사회 혹은 국가의 '문명됨'은 가족의 '문명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계몽담론에 의하여 '가족'은 사적영역으로, 국민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재발견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개화기 가족은 이렇게 '계몽'의 영토로 편입하게 된다. 계몽의 기획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은 '국가'의 성립이었고, 담론은 '국민'의 역량에 의해 이것이 달성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 국민을 넣고 양육해야 하는 '가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족', '국민'을 넣은 단위로서의 '가족'은 새로운 문명의 규율에 의해 단장되어야 했다.

IV. '가족주의'의 해체와 부활

근대국가를 완성시키고자 했던 계몽담론은 가족과 국가를 이 분법의 구도로 배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특히 '가족주의'는 '국가주의'와 더욱 첨예한 대치구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면 계몽담론이 주조하고자 했던 '국민'은 엄밀히 말하여 '국가주의'로 무장된 국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국가의 대립구도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란 지점에서 더욱 치열해진다. 이제 계몽담론안에서 '가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가와 국가주의의 탄생이 바로 가족과 가족주의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먼저, 계몽담론이 생산해내는 국가와 국가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민족지인 신보의 '국가'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을 '국가'에 수렴시켜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가를 버리고'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기에 '일신의 모발이나 심력을 다 국가에 바쳐야 될 때라'(신보, 1909.1.5.)고 말하는 신보는 창간 이래로 거의 모든 논설에서 '국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신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지는 국가를 '날마다 부르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특히 '국가 근본 백성이'라 백성들이 새로워야 국가 역시 새롭나니, 국민유신 못하고야 국가인들 새를 쏘느냐 … 전일 구습 다 버리고 새국민이 되어보자'(신보, 1909.1.9.)라고 하는 담론이 잘 말해주듯이 개인을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의 건설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 만들기'라는 계몽의 기획은 '국민자격'이란 말로 구체화되었다.

무궁화야 무궁화야 스천년을 헌 희 도는 혜의동방 이 아닌
가 우리 동포 일심되야 국민자격 비양호고 선왕유풍 목욕
호야 너와 그치 무궁화자 … 무궁화야 무궁화야 구미각국
유람호야 문명풍기 밟은 후에 강장력을 양성호야 팔목상터
호는 날에 상등국민 새로 되어 너와 그치 무궁호자 (신보,
1908.8.8. "시스평론")

'사람마다 급히 깨여 열강국의 모범으로 국명사업 성취하고 상등인물 되는 것이 국민자격 아니렷가'(신보, 1908.7.30.)라는 주장에서 '국민자격'은 개인이 '국가정신'을 몸 속 깊이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만 그 나라 국민의 독립정신이 있고 없는 데 있지'라는 논조는 '이 정신만 있으면'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신보, 1908.2.8.). '그 나라의 혼[나라·정신]만 잃지 아니하면 비록 천변만화의 기괴 수단으로 압제를 행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니' (신보, 1908.5.2.)라는 말처럼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정신'은 국가의 존멸을 결정지을 생명의 원천이 된다. 담론은 '정신'으로 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정신으로 된 국가란 그 민족의 독립할 정신, 자유할 정신, 생존할 정신, 굴복치 아니할 정신, 국권을 보전할 정신, 국가 위험을 발양할 정신, 국가의 영광을 빛나게 할 정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가의 형식은 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며, 국가의 정신만 망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형식은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인 것이다(신보,

1909.4.29.). 국민정신으로 무장하는 것 즉 '국가주의'는 한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규범이었다(신보, 1909.6.18.).

그리고 이와 같은 '근대국가' 건설의 열정은 가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펴본 '교육'이었다. 개화기 문중세력은 '학교'를 설립하고 있었다. 가문이라는 것이 '가족주의'의 결정체이며, 교육은 '국가 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으므로, '개화기'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문중들이 자신들의 자제들을 위하여 세운 '가족학교'에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이러한 가족학교를 계몽담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신보는 청주의 신씨들이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계를 설치(設始)한다고 전하면서 그 학계의 통감 신태휴가 종중(宗中)에게 전포한 권고문의 전문을 전하고 있다. '교육이 오늘날 급 선무'이기에 '우리 자제와 우리 문중과 우리 국가를 사랑할진댄 이 교육에 있으니 우리 종족들은 실심으로 힘쓸지어다'라고 맺고 있는 이 권고문에서 신태휴는 교육을 국민된 분자의 의무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것으로 문중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신보, 1908.6.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학교의 당위성은 국가와 문중에 이익이 되리라는 것에 있다. 문중 중심의 가족학교에 대한 계몽담론의 반응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논평'을 아끼고 있었으나, 수일 후 신보는 신태휴의 영천 학계 이후에 '동종의 후손들이 다수가 근거하여 사는 지방'을 중심으로 가족학교가 설립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교육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가족교육에 유지하신 제군자여 교육의 범위는 적은 가족(곧 동종)을 유지케 함에 한정할지라도 교육의 정신은 큰 가족(곧 국가)을 유지케 함에 항상 들지어다'라고 하면서 가족교육의 목표가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염려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학교'에 대한 논평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담론은 앞서 말한 '신씨 학회'를 포함하여 일련의 가족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풍속이니 어찌 국민의 자격을 갖춘 자의 할 바이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면에 대하여 '가족 생각은 뇌수에 박하고 지방주의는 창자에 새겨서 국민의 자격을 양성치 못하면 어찌 경쟁하는 세계에 서리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론은 '가족학교'가 '국가'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가족' 즉 자신의 문중만을 위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었다.

가족교육을 찬성함이 아니라 다만 교육의 발달함을 찬성

함이오 뜨 미양 권고호기를 적은 가족의 소상을 보리고 큰 가족 국가의 소상을 두며 혼 집의 조상만 위호지 말고 여러집의 조상되는 단군을 위호며 한집 조손만 사랑하지 말고 곳 견국의 도조상 단군의 조손신지 사랑호며 혼 집안 직산만 앗기지 말고 견국 직산을 앗기라 혼 말을 여러번 본보에 고지치 아니호엇는가 … 나의 이 의론은 가족의

설립호 학교를 타파코져 흠이 아니라 가족 소상을 발 기호 학교를 평론만 흠이로다 … 일편 경신이 대한 전국에 잇스면 누가 그 가족교육이라 비평호리오(신보, 1908.9.4. "가족 소상을 타파함")

당시 계몽담론이 가족학교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족학교가 자칫 '가족사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몽담론의 논지는 '가족학교 설립하니 없음보다 낫거니와 박람해야 슬기 밝어 학문상에 요긴한데 한집 속에 문전으로 사회출두 어찌하나 고루함이 흠절이오'(신보, 1908.9.1.)라는 문구는 '가족학교'에 대한 당시의 반향이 잘 응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의 개명은 전국 내 모든 가족의 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은 '가족 사상'으로 출발된 학교는 '국가 사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학교'는 타파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적어도 신보에 있어 가정교육에 대한 당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처음 교육에 대한 열의로 말미암아 가족학교를 찬성하다가 그것의 구체적인 목적이 '국가'에 수렴되지 않음을 알고 비판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개화기 가족은 '국가주의'의 실천단위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의 실천은 가족이 문명한 국가를 위한 '문명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표면화되었다. '문명한 규율'은 가족구성원의 내면에 체화되어야 했으며, 이때 '가족'이 결집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계몽담론의 요지였다.

한편, 이러한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의 극한 대립은 종종 그 구도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가 곧 '집'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을 때 가족과 국가의 이분법적 분활의 구도는 순식간에 해체되고 있었다.

대더 나라는 곳 일개 큰 집이라 … 동서에 널려 있는 각국이 모다 더의 민족이 그 나라를 일호면 곳 그 집을 일홈과 호며 그 나라를 보존호던 곳 그 집을 보존함과 다름이 업느니라 이 대한데국으로 의론흘지라도 아세아 동방에 놓히 세운 일개 큰 집이라 곳 대한민족의 쥬접호는 집이로다(신보, 1909.5.13. "나라는 곳 일개 큰 집")

계몽담론에서 '국가'는 '가족' 혹은 '집'이 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었기에 국가를 집이라 하는 담론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먼저 '국가는 곧 한 집 족속을 크게 말한 바'라고 말하는 다음의 담론에서 국가와 집을 동일시하고 있는 시선을 만나보자.

시조 단군이 태백산에서 톤성호샤 이 나라를 지창호샤 후 세 조손에게 뜻쳐 주시니 삼천리 강토는 곳 그 집 산업이 오 스천년 력스는 곳 그집 족보며 력터 매향은 곳 그집 종통이오 디경을 둘러잇는 산호는 곳 그집 울타리라 오직 이 이천만 조손이 여고셔 나서 여고셔 자라고 여고셔 합의 살고 여고셔 흠의 의지 식지하고 여고셔 즐기고 즐

허름을 흠피호느니 짐과 나라이 무엇이 다르리오 … 그 런고로 굽아더 국가는 곳 큰집의 족속이라 흠는 바 | 니 오호 | 라 이말이 비록 천근호나 오늘날 한국 국민의 집히 성각호 바 | 니라 (신보, 1908.7.31. “국가는 곳 혼집 족속이라”)

이상의 담론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단군은 시조가 되며, 국토는 그 집의 산업이며, 역사는 족보이며, 역대 대왕은 종통이며, 영웅호걸은 어진 자손이며, 도적과 탐욕한 수령은 ‘불초한 자손’이 된다.

계몽담론의 이러한 목적은 국가를 ‘나라집’으로 부르는 데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國家)가 ‘국(國)’과 ‘가(家)’가 더해진 말이라고 보았을 때 ‘국’은 곧 나라가 되고 ‘가’는 곧 ‘집’이 된다. 따라서 국가(國家)를 ‘나라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닐 것이다.

임군과 정부와 빅성이 그 나라에 더호 디위는 비록 다르나 그 흥하고 망하고 리하고 해하고 근심하고 즐겨함은 일반 이라 이제 임군과 빅성을 물론하고 나라집의 책임을 당해야 만일 훈가지라도 잘못 흥야 나라이 나라된 테면을 손살하면 그 토디와 권리를 보전치 못함은 고사하고 그 흔몸의 성활함도 능히 못흘 거시오 다만 일신의 성활함을 능히 못할 뿐 아니라 그 일홈도 이를 좋축 멸망홀지니 이 렵으로 사롭마다 나라를 소탕하는 성심은 조연히 심하는 바이라 (신보, 1907.10.20. “의국호는 성심”)

국가를 ‘나라집’으로 지칭함에 따라 국가는 ‘집’이 되고, 국가의 구성원은 가족원이 된다. ‘가족’을 ‘국가’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미완성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담론은 왜 ‘국가’를 ‘집’으로 등치시키고자 하였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집’, ‘가족’에 대한 애착을 ‘국가애’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대한 중요성, 국민의 도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논리를 적극 이용하고자 한 것이 계몽의 기획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위의 담론은 계속해서 ‘나’라는 개인의 이름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문’은 사라지지 않기에 ‘김씨’, ‘이씨’라는 가문이 멸망한 나라의 가문이란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 개인의 사사 권세와 적은 이익을 합하여 나라집의 공변된 권세와 큰 이익이 되나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집’은 개인 하나 하나의 권세와 이익을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나라’는 ‘한 집안과 일반’(신보, 1909.9.12.)이며, ‘우리 대한국은 한 집이오 우리 국민은 모두 형제라’(신보, 1908.8.6.)는 주장은 계몽담론에서 매우 익숙한 수사이다. 대한제국을 ‘대한민족’이 주접(住接)하는 ‘집’으로 설명하는 구도 아래에서 ‘가족주의’는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우리한국은 조리로 전국토디도 혼집의 스스스적순이오 전국인민도 혼집의 스스스종이며 나라의 일도 그 집의 스스스일이오 나라의 지정도 그 집안의 스스스걱정이며 나라의 슈치도 그 집안의 스스스슈치라 인민은 감히 나라 일에 참여하여 듯지도 못한 엇슴으로 국가이 무엇인지 인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엇스니 엇지 경정을 알니오 (신보, 1910.8.5. “국민경정의 대세”)

국토와 인민과 국사 등을 모두 ‘집’ 안의 대소사로 설명하고 있는 위의 담론은 암묵적으로 맹목적인 ‘집’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가족주의’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이때 가족주의의 부활은 철저하게 ‘국가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가족주의’는 국가는 곧 집이라는 논리 아래 ‘국가주의’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담론은 ‘집’이 구성되는 원리로 ‘국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자기 몸의 회생은 곧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된다고 여기었기에 국가와 동포를 위하여 ‘몸을 바치자’고 절규하고 있었다 (신보, 1907.10.19.).

주지하다시피 개화기 계몽담론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탄생이었다. 그것은 계몽의 기획에 의해 주조된 것이었다. 계몽의 담지자들은 국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반복한다. 그 기준은 물론 ‘국가’에 있었다.

‘국가’는 가족에 의해 성립되었다. 국가에 대한 계몽의 기획은 ‘가족’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의 당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즉 계몽담론은 가족을 외면하는 몸짓에 의해 ‘국가’를 주조하는 동시에 ‘가족’ 안에서 국가의 당위성을 찾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은 개화기 국가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 ‘문명’의 산물인 ‘국가’는 야만의 산물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이었고, 공적영역으로서의 ‘국가’의 성립은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개화기 가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정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국가’의 주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계몽의 담지자들은 국가를 ‘공적 제도’를 통해 성립시킬 힘이 없었다. 일제의 식민정책이 중앙정부 깊숙이 스며든 상황에 ‘제도’를 통한 국가의 완성을 실현불가능 한 것이었다. 따라서 계몽담지자들은 ‘정신’을 통해 ‘국가’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주의로 무장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한 제도의 부재는 계몽의 목소리를 더욱 꾀꼬리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가족과 가족주의를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조선사회에서 ‘가족’과 ‘가족주의’는 통치의 원리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가족과 계몽의 기획에 의해 탄생한 ‘국가’는 서로 공유와 대립의 모순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의 탄생을 위해서는 기존사회의 중추적 원

리인 '가족'은 사라져야 했으나, 동시에 '국가'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계몽담론안에서 '가족주의'는 '해체'와 '부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V. 맷음말

다음 「두견성」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한 장면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이질적인 것이다.

아이는 창 밖에서 주저주저하다가 일시에 문을 열고 들어 와서 여기저기 벌여놓은 신문축(新聞軸)을 어려움 없이 밟으면서 곧 부장의 의자로 달려들어, 남학도는 오른편으로 오고 계집아이는 왼편으로 와서 산악(山巒)같은 부장의 무릎에다 턱걸이를 하고,

(아이)「아버지!」 (「두견성」, 한국신소설전집 5권, pp.385~386.)

산악과 같이 거대한 아버지이지만 아들과 딸 모두는 그런 아버지를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달려들어 아버지의 무릎에 안기는 위의 장면은 지금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아들과 딸의 차별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아버지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여지없이 근대가족의 한 단면이다.

「두견성」의 한 장면을 작품 전체의 내용전개와 관계없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무리라 할지라도, 이 장면은 개화기 '가족'의 변화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엄부(嚴父)'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녀의 턱걸이로 자신의 무릎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자'와 '신문' 같은 서구의 문물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다. 개화기 서구문화의 유입은 '가족'을 새로운 인식의 장(場) 위로 이주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계몽의 기획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계몽담론안에 나타난 '가(家)', '가족', '가정', '집'이란 기표를 추적해 보고, 이 기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배경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개화기 계몽론자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관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있다. 그것은 한국 가족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국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몽담론은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교육을 통하여 백성은 '국민'으로 교화된다고 인식하였다. 계몽담론은 사회의 전 영역을 '국가주의'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가주의'는 종횡무

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뇌수에서 죽음 이후의 '혼'까지, 물리적인 영역으로 말한다면 '끝없는 대우주'로까지 무한궤도를 달리고 있었다. 또한 계몽담론에 의하여 '국가'라는 동일화의 원리가 작동되는 순간 그것은 '국가'를 기준으로 '수용'과 '배제'의 구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몽의 기획에 의하여 '가족'은 수용과 배제를 반복하면서 '국가'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개화기 가족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국가' 위에서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때 국가와 가족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체계에 의해 정의 내려진다. 야만시대의 산물인 가족은 문명시대의 산물인 국가에 비해 열등하고, 미성숙한 것이 되어 가족과 국가의 관계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계로 설명된다. 수직의 위계적 질서에 의해 가족은 '국가'를 향해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가족과 동등한 무게를 갖게 된다. 계몽담론은 '국가'를 '부모국'으로 지칭하면서, 가족에게 국가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된다. 국가가 부모가 된 이상 가족은 국가에 '효'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계몽의 영토 안으로 강제 이주된 가족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주목할 변화는 가족이 사적영역으로 자리 매김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적영역인 국가와 대치되는 구도에서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족은 '사사로운' 것이 된다. 특히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는 측면은 가족을 공적영역으로 이끌고자 했던 계몽의 시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족이 '국가화'를 통한 공적영역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가족은 사적영역이란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공(公)을 위해 사(私)는 소멸해야 했기에, 가족은 국가를 위하여 부재(不在)해야 한다. '부재' 해야할 가족의 모습은 '국민'을 기르는 기관으로 '국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국가의 탄생은 단순히 국가라는 공공영역의 생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은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을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화기 계몽담론에 의해 주창되었던 '가족주의'가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영역으로서의 가족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강하게 펼쳐지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주의'는 '국가'의 완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다. '국가주의'는 '가족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운데에서도 '국가주의'의 당위성은 '가족주의'에 있었다. 담론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족사상'은 타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나라집'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집'과 같은 것으로 배치하면서 '가족주의'를 '국가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 아래 '가족주의'는 해체와 부활을 반복한다. 모든 것을 '국가' 안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던 계몽론자들은 가족도 국가에 포섭하고 통합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포섭과 통합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담론은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적절히 배치하

면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가족주의'의 해체와 부활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 가족에 대한 계몽담론의 시각은 이중적인 것 이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가족'은 호명되기도 하였고, 동시에 배제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가족'이 개인에게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장이었던 것에 비해 계몽담론이 주조한 '가족'은 과거의 가족과는 엄청난 괴리를 갖는 것이었다. 계몽담론에 의해 가족의 당위성은 '국가'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다시 말해 '가족'을 '미완'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족은 사사로운 영역이었고, '국가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미시적인 단위가 되었다.

개화기 가족에 대한 계몽담론의 주장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지 조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을 주조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계몽담론의 논의가 갖는 강한 짜임은 담론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을 주조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담론은 국가와 사회질서의 원리로서 자리 매김한 '가족주의'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국가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망하면서, 사회의 절대적인 구성원이었던 가족주의의 위상을 흔들고 있었다. 유교적 원리에서 벗어나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계몽담론은 가족에 대한 개념틀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이후 가족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접수일 : 2002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4일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대한매일신보
 정운복(1906). 가정교육. 대한자강회월보. 1906, 7, 제1호.
 제국신문
 두견성. 한국신소설전집 5권. (을유문화사, 1968).
- 2차 자료
 가라타니 고진 지음. 박유하 옮김(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신옥희(1983). 조선시대 유교윤리의 특성과 한계. 한국인의 윤리
 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현종(1966). 구한말 정치, 사회학회·언론단체 조사자료. 아세
 아학보 2집.
 전미경(2001a).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
 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19(2). 67-82.
 전미경(2001b).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분석: 신문과 신소설을 중
 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19(3). 17-29.
 정진석(1987). 대한매일신보와 배설. 나남.
 홍일표(1997). 주체형성의 장의 변화: 가족에서 학교로. 김진균·
 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